

# 해방 3년의 韓國政治

金 桂 洙

(外國語大學校)

〈目 次〉

I. 序 論

II. 左右翼의 對立

III. 政治的 大爭點과 鬭爭

IV. 結 論

## I. 序 論

日帝가 聯合國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韓國은 美國과 蘇聯에 의해 分割占領되었다. 北緯 38度線 이남에서는 分割占領의 사실을 모르는 상황 그리고 美軍政의 實施 狀況 속에서 지도자들의 정치활동이 전개된다. 그후 1948년 8월 15일 單獨政府가 수립되기전까지의 3년간은 韓國政治體系의 理念, 方向에 대한 기본적 틀이 구축, 결정되는 중대한 旋風期였었다.

國內外에서 중심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맞이하였던 8.15解放은 韓國政治를 큰 혼란으로 陷入시켰다. 38線 以北에서는 蘇聯軍이 신속히 점령, 진주함과 동시에 金日成을 위시한 그들의 훈련요원들이 人的·物的 資源을 동원, 정리하고 「소비에트」 社會主義體制에의 指向과 改革을 斷行, 推進시킨데 비하여 南韓에서는 늦은 美軍의 進駐, 그리고 그들의 한국에 대한 無知와 미봉적인 정책등으로, 말미암아 政治的·思想的·社會的·經濟的 혼란은 격심하였다.

우리는 解放 3年間의 國內政治史에서 그 主役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 呂運亨, 朴憲永, 宋鎮禹이었고, 이것은 國民大會準備會 對 建國

準備委員會, 重慶大韓民國臨時政府支持 對 朝鮮人民共和國支持, 韓民黨 對 共產黨·人民黨·新民黨 즉 우익과 좌익의 대립·투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에 귀국한 독립투쟁가인 李承晚, 金九, 金奎植이 참가된 人物政黨, 集團들이 解放後 3년동안에 발생된 정치적 중요쟁점인 (1) 信託統治問題 (2) 左右合作問題와 立法議院 (3) 單獨政府수립문제 등을 위요하여 그들의 정치이념과 정권획득 또는 확대를 위하여 치열하고도 극심한 경쟁을 벌였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여기서 상술한 관점에서 解放後 3년의 政治史의 小史 또는 略史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II. 左右翼의 對立

1945年 8月 6日 日本 廣島市에 美爆擊機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9日 未明에 蘇聯軍이 朝鮮, 滿洲로 쳐들어 오게 되니 日本의 패망은 명백해졌다. 8月 9日 日本에 대하여 蘇聯은 정정당당하게 宣戰布告를 하고 전쟁을 개시하였으나 日本에서는 蘇聯에 대하여 선전포고도 못한 채 회의만을 거듭하고 있었다.

日本의 패망은 확실하게 되었고 朝鮮總督府는 日本人居住者의 生命, 財産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日本人 自身들이 그들의 彈壓的이고 差別的이며 搾取的이었던 植民統治에 대하여 한국인이 가지는 분노, 증오심을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sup> 여기서 總督府 當局者들은 국내적으로 영향력 있는 韓國人 지도자들에게 治安權 나아가 통치권의 상당한 부분까지도 이양하여 그들 자신들의 안전을 기하려고 하였다.

1) 한국인의 식민통치에 관한 묘사는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김차동譯, 「한국전쟁의 기원」(서울: 일월서각, 1986), p. 109.

이러한 總督府 當局者들의 교섭대상자로서 먼저 선정된 人士가 宋 鎭禹였었다. 9日~13日에 걸쳐 4차나 교섭을 받았으나 끝내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sup>2)</sup> 이어 金俊淵을 그 대상으로 삼아 14일 교섭하였으나 그도 宋鎭禹와 뜻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sup>3)</sup> 이러한 총독부의 교섭을 呂運亨은 수락하여 8月 15日 午前 7時半에 朝鮮總督府 政務總監 遠藤柳作을 만나<sup>4)</sup> 政治犯·經濟犯의 즉시석방, 治安權 등 5個項의 條件<sup>5)</sup>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경우로써 呂運亨은 8.15해방과 더불어 재빨리 정치활동을 개시하여 建國準備委員會의 조직에 착수하였고 국민들의 光復에 대한 감격, 기쁨, 上昇기대에 편승하였고 또 오랫동안 억눌려온 國民들의 政治·社會에의 參與爆發에도 힘입어 8月 28日 전국적으로 그 조직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國內 政治勢力形成에 있어 막강한 중요한

2) Cumings(김자동譯), 위의 책, pp.109~110. ; 김정원, 「분단한국사」(서울: 동녘, 1985), p.68. ; 金俊淵, 「獨立路線」(서울: 政治와 文化社, 1947, 6版), pp.2~3. 여기서 宋鎭禹가 日帝當局의 교섭을 거절한 이유로 Cumings는 건강이유, 日本을 도와 주기 싫다 중 附日혐의를 우려하여 후자를 주장하고 있고(pp.109~110), 김정원은 臨時政府를 봉대한 이유(p.69)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宋鎭禹의 거절 이유로 金俊淵은 宋鎭禹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수백번 들었다고 한다. 즉 “日本이 망하기는 꼭 망한다. 그런데 그들이 形勢가 궁하게 되면 우리 조선 사람에게 自治를 준다고 할 것이고 形勢가 아주 궁하게 되어서 進退維谷의 경우에는 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獨立을 許與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自治를 준다고 할 때에 나서지 아니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립을 준다고 하는 때에도 결코 나서서는 안된다.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危險할 때다. 망해가는 놈의 손에서 政權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프랑스의 페탕政權을 보라. 中國의 汪兆銘政權을 보라. 比律賓의 라우펠政權을 보라. 그들이 필경 허수아비政權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民族反逆者의 이름을 듣게 된다”(위의 책, p.5)고 지적하고 있다.

3) Cumings(김자동譯), 앞의 책, pp.65~66.

김정원, 앞의 책, p.69.

金俊淵, 앞의 책, pp.3~4.

日帝는 共產主義者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漸進主義的 民族主義者인 宋鎭禹, 金俊淵을 그 교섭대상으로 선정한 것 같다고 Cumings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宋鎭禹, 金俊淵의 거절로 日帝는 呂運亨을 마음 속으로 내키지 않았으나 그 교섭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김정원, 앞의 책, p.69).

4) 金俊淵, 앞의 책, p.4.

5) 宋南憲, 「해방 3년사」(서울: 까치, 1985), p.7.

영향력<sup>6)</sup>을 가진 宋鎮禹와 呂運亨과의 제휴는 建國運動의 始動에서부터 총독부와의 治安權 이양에 대한 거부, 수락의 態度・立場으로써 분립되었고 대립의 씨앗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총독부와의 治安權이양에 대한 두 개의 대립된 반응은 상이한 性格, 經歷, 人間關係를 가지고 있었던 宋鎮禹, 呂運亨을 중심으로 하는 國內의 중요한 두 政治集團의 政治的 方向, 路線設定, 戰略에 어떠한 制限의 特性을 잘 나타내 주는 事例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 兩者 및 그들의 정당은 해방후 政治路線, 獨立路線에 있어 대표적인 左右翼으로서 분립되고 급기야는 극한적인 左右對立의 투쟁대상으로 상승되어간 것이다.

### 1. 左翼<sup>7)</sup>

조선총독부의 치안권이양 교섭에 응한 呂運亨의 建國準備委員會는 行動主義者와 漸進主義者, 獨立運動家 등의 著名人士들을 위원으로 사전 승낙없이 자의적으로 선정 임명하여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통치 위원회가 모든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려고 노력하였다.<sup>8)</sup> 그러나 실제로 建國準備委員會는 ① 呂運亨의 建國同盟을 중심으로 하는 社會主義의 勢力과 ② 安在鴻을 중심으로 하는 右翼勢力 ③ 李英, 崔益翰, 鄭栢 등을 중심으로 하는 長安派 共產主義勢力 그리고 ④ 朴憲永, 李康國, 崔容建 등을 중심으로 하는 再建派 共產主義勢力이 聯合한 政治團體였었다. 여기서 후에 右翼인 安在鴻은 사퇴하는데 그가 선언한 이유는 당시 建準의 정치성격을 잘 표시하였다고 생각되

6) 建國準備委員會조직부장 鄭栢은 金俊淵에게 “宋鎮禹氏側과 呂運亨氏側이 提携하면 國內에 있어서는 對抗할만한 勢力이 없을 터이니 그 뜻을 宋鎮禹氏, 金性洙氏에게 말해 달라”라고 宋, 呂의 提携 앞선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金俊淵, 앞의 책, p. 4).

7) 梁東安, “混亂 속의 국가형성,” 「現代韓國政治史」(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p. 39에서 그는 「左翼」과 「右翼」의 用語를 定義하고 있는데, 저자도 이에 동감하고 그러한 뜻으로 여기서 사용하고자 한다.

8) 김정원, 앞의 책, p. 69.

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해 두려고 한다. 즉 그는 “建準이 일시 당면한 임무로서 國內 秩序의 自主의 維持와 대중생활의 확보, 신국가 건설의 기술적인 준비로서 각 방면의 전문적인 對策의 研究와 자재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 공작 등을 담당하는 朝鮮民族 解放運動過程에 있어서의 超階級的 협동전선으로 명실상부한 過渡的 機構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강을 가진 政黨도 아니요, 그 운행사 자신들의 조각본부도 아닌 것이요, 따라서 다년간 해외에서 解放運動에서 진취하여오던 혁명전사들의 지도적 집합체인 해외정권과 대립되는 존재도 아닌 建準이 점차 이와 같은 편향된 성격, 특히 左翼勢力의 집결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sup>9)</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左翼 온건파에 속한 呂運亨이 再建派 共產黨과 提携한 것은 前共產主義者였었던 경력의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解放後 韓國에 관한 國際的 時局觀에서의 誤判에서도 基因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8月 16日 午後 2時에 蘇聯軍이 京城으로 進駐한다는 說이 유포되었고 建國準備委員會側에서는 휘문중학교 운동장에서 그를 先頭로 數萬群衆이 동원되어 京城驛으로 나갔으나 蘇聯軍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었다.<sup>10)</sup> 아마 이것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소련이 한국의 전역을 점령하고 미국은 남단인 부산·목포 지역만을 점령한다는 그릇된 정보의 영향<sup>11)</sup>이 계속 유포된 것이 작용되었는지 모른다고 생각된다.

建準內에서는 점차 再建派 共產主義者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 呂運亨도 사실상 再建派 共產主義者 위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서울에 蘇聯軍이 아닌 美軍의 進駐가 확실하게 되자 建準은 自體勢力으로서 긴급히 政府를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9月 6日 左翼은 齋洞 京畿女高 강당에서 全國代表者會를 開催하여 朝鮮人民共和國 임시조직법안을 上程 통과시켰

9) 宋南憲, 앞의 책, p. 48.

10) 金俊淵, 앞의 책, p. 6.

11)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 115.

다. 그리하여 55名の 中央委員, 20名の 候補委員을 선출하였고 12名の 顧問을 추대하였다. 그리고 全國에 조직된 建國準備委員會支部를 人民委員會로 改稱하여 地方政府組織機構로 변이시킨 것이다. 그리고 建準은 발족한지 20日만에 급조된 朝鮮人民共和國을 선포함으로써 해산된다.

朝鮮人民共和國은 韓國을 대표하는 政府임을 표방하기 위해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李承晩을 주석으로 모셨고, 臨政요인들 중 金九, 金奎植, 申翼熙, 金元鳳 등과 그들을 반대하고 있는 韓民黨의 金性洙, 金炳魯 등도 요직에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左翼系의 집결체인 建準은 人民共和國으로 그 집결체의 명칭이 바뀌어졌고 그 주된 구성 정당인 조선공산당, 朝鮮인민당, 남조선 신민당<sup>12)</sup>이 左翼의 代表的인 政黨이 된 것이다.

## 2. 右 翼

좌익의 민속하고 활발한 정치활동에 비하여 우익의 정치활동은 관망적인 시일을 가졌었고, 따라서 그 활동도 늦게 개시되었다. 그러나 9月 6日 左翼系의 朝鮮人民共和國의 수립선포에 따라 이에 대한 全面的인 비난 공격을 개시하였고 그의 타도를 선언한 정당이 韓國民主黨이었다. 韓民黨은 9月 16日 天道敎記念會館에서 1,600名이 운집한 가운데 조직 발기되었다. 원래 韓民黨은 ① 金炳魯, 元世勳(해방직후 조직된 高麗民主黨에서 合黨), 白寬洙, 趙炳玉, 李仁, 羅容均, 咸尙勳, 金若水, 朴贊熙, 金用茂, 朴明煥, 申允局, 鄭光好, 玄東完 등이 8月 28日 조직 발기한 朝鮮民族黨 ② 白南薰, 金度演, 許政, 崔允東, 李雲, 張德秀, 洪性夏, 李順鐸, 具茲玉, 兪億兼, 尹潛善, 尹致暎 등이 9月 4日 조직 발기한 韓國國民黨 그리고 ③ 宋鎮禹, 金性洙, 徐相日, 金俊淵, 張澤相, 安東源, 金東源, 金東元 등의 330名の 全國의 道·郡 代表者로서 9月 7日 조직 발기된 國民大會準備會의 3個 團

12) 梁東安, 앞의 책, p.42 및 註 67).

體가 統合하여 결성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韓民黨의 구성인물은 민족진영의 知識層, 國內外에서의 독립운동자, 온건한 민족적 민주사회주의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추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正統性을 인정하여 그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따라서 좌익계의 朝鮮人民共和國의 수립을 불법으로 승인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타도에 앞장섰던 것이다. 전적으로 대중적 조직과 선전에 의존함으로써 당시 강력한 勢力을 과시하고 있었던 조선공산당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익정당으로서 한민당은 공산당의 집중적인 공격, 비방의 주대상이 되었다. 지주, 보수집단, 親日反動徒輩의 집단이란 비난을 받아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政綱, 政策을 보면 社會改良主義的 要素<sup>13)</sup>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自由民主主義로서의 國基수립을 그 주된 理念으로 하고 있었다.

其他 많은 右翼政黨<sup>14)</sup> 중에서 既存의 共和黨, 權友同盟, 同志會, 社會民主黨, 自由黨 등의 群小政黨들이 安在鴻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1945年 9月 2日 조직, 발기한 國民黨이 있으나 47年 2月 安鴻在이 南朝鮮過渡政府의 民政長官으로 就任하자 이 政黨은 解散되었다.<sup>15)</sup>

海外에서의 李承晩의 귀국과 金九 및 임시정부의 우익요인들의 귀국 등으로 국내의 우익진영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政界의 전개양상은 우익진영의 統合過程보다도 오히려 더 분열되어 가는 現象이 벌어졌다. 즉 우익진영내에서 李承晩 對 金九, 金九 對 韓民黨, 李承晩 對 金奎植, 金奎植 對 韓民黨 등 등의 갈등·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13) 梁東安, 앞의 책, p. 43 f76, 77과 p. 44 f. 81 參照

14) 朴文玉, 「韓國政府論」(서울: 博英社, 1963), pp. 377~379.

15) 梁東安, 앞의 책, pp. 51~52에서는 安在鴻을 中道派로 分類하고 있으나 그 역할 및 개인적인 安在鴻 외의 政黨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 따로 中道派로서 取扱하지 않기로 한다.

### Ⅲ. 政治的 大爭點과 鬭爭

#### 1. 信託統治 問題

美軍政下 左右翼의 諸勢力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계기가 연합국의 信託統治構想이다. 이는 1945年 12月 모스크바 3 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美·英·中·蘇 4 개국에 의한 5 개년 信託統治案으로 구체화되었다.<sup>16)</sup> 이에 대하여 政治文化的 自負心이 강한 민족으로서 日帝의 植民統治를 경험한 마이므로 信託統治를 “半萬年 文化民族의 名譽와 自尊을 侮辱하고 韓民族의 自主獨立精神에 根本的으로 背致되는 것”<sup>17)</sup>으로 인식하여 반대가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左·右 諸勢力은 信託統治案을 舉族的으로 반대하였다.<sup>18)</sup> 그러나 左翼이 태도를 바꾸어 1946年 1月 2日 三相會談의 결정이 朝鮮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옳은 길이라는 주장에서 信託統治案 支技를 표명하자 이는 大爭點으로 化한다.<sup>19)</sup> 특히 朴憲永은 1月 8日 外信記者와의 회견에서 信託統治案을 絶對支持하여 終局에는 朝鮮이 소련의 한 연방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sup>20)</sup>는 의견을 피력해서 右翼의 韓民黨이 左翼을 反民族的의 勢力으로 몰아 세우는 구실을 제공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朴憲永의 信託은 상당히 손상되었고 右翼에서는 共產主義者들을 “매국적 소련 괴뢰”로 부르게 되었다.<sup>21)</sup>

16) 信託統治案 決定過程에 관해서는 Cumings, 앞의 책, pp. 281~284의 資料를 參照; 또한 沈之淵, “신탁통치문제와 해방정국,” 「韓國政治學會報」, 第十九輯(1985), pp. 147~161 參照.

17) 沈之淵, 「해방정국논쟁사 I」(서울: 한울, 1986), p. 51의 引用資料

18) 信託統治案에 대한 李承晚, 安在鴻, 韓民黨, 人共中央委員會, 解放日 建國同盟, 獨促 등의 反託表示 陳述은 梁東安, 앞의 책, pp. 53~56 參照. 특히 朴憲永 등 左翼의 反託意思表示에 관한 陳述은 pp. 58~59.; 金正源, 앞의 책, p. 83 參照.

19) 특히 左翼 태도변동에 관해서는 Cumings, 앞의 책, p. 292.

20) 韓民黨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朴憲永을 타도하라”는 전단을 유포시켰다. Cumings, 앞의 책, pp. 293~294. 여기서 Cumings는 이것이 誤報라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左翼은 결국 모스크바 협정지지를 계기로 南韓에서 대중적 지지가 약화되는 결과를 맞았다.<sup>21)</sup> 따라서 左翼은 共產主義의 理念에 초점을 맞추어 主導權 장악을 위한 투쟁을 추진한 바, 美軍政의 실책으로 야기된 諸問題<sup>22)</sup>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이용하여 罷業과 暴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세력단회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美軍政의 탄압을 유발할 뿐이었다.

사실상 反託運動은 右翼中心으로 이루어졌으며 핵심인물은 金九와 臨政係 人士들이었다. 金九는 12月 29日 전국적 파업을 호소하였으며 軍政의 韓人官吏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모든 정당들을 해체하며 臨政을 한국의 정부로 즉시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련의 布告文을 발표하였다.<sup>24)</sup> 그후 李承晩의 獨立促成中央協議會와 연합하여 非常政治會議를 過渡의 自主政府樹立을 목표로 한 非常國民會議로 개칭하고 세력진장을 주도하였다. 그는 민족의 原初의 感情에 호소하여 舉族的 호응을 받았다. 韓民黨은 左翼을 反民族勢力으로 몰아 세움으로써 이를 勢力伸張의 전환점으로 삼으려 했다.<sup>25)</sup>

李承晩은 國內外諸勢力의 力學關係를 진단하여 反託運動을 그의 권력장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南韓單獨政府樹立運動에 이용하려 했으므로, 金九의 統一國家指向을 위한 反託運動과는 의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金九와 李承晩은 反託陣營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非常國民會議에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 最高政務委員 28名을 선임한다. 이

21) 위의 책, p. 294.

22) 위의 책, p. 291. Cumings는 1946年初 左翼이 南北韓을 통하여 우세하였다고 說明한다.

23) 당시의 심각한 식량난과 더불어 美軍政의 韓國實情에 대한 無知와 長期의 政策의 결여로 많은 問題가 있었다. 특히 土地制度, 총독부 관리의 유입, 일제하에서 근무한 경찰의 유입 등에 대한 大衆의 不滿이 상당하였다. 1946年 국립경찰에 제직 중인 식민경찰 출신자 '비율'에 관해서는 Cumings, 앞의 책, p. 222 表 參照. 특히 美軍政의 韓國에 대한 無知와 장기적 정책비전결여에 대해서는 梁東安, 앞의 책, pp. 21~25, Henderson, 앞의 책, pp. 120~121.

24) Cumings, 앞의 책, pp. 288~289.

25) 위의 책, p. 291.

에 美軍政은 信託統治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右翼을 회유하기 위해 美軍政廳의 최고자문기관인 南朝鮮大韓民國 民主議院에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議長에 李承晩, 副議長에 金九·金奎植이 임명되었다. 따라서 右翼의 反託運動은 非常國民會議, 大韓獨立促成中央國民會, 民主議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金九 주도의 非常政治會議에의 參與를 거부한 左翼은 右翼으로부터 反民族的이라고 매도당한 뒤, 大衆으로부터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 협정지지를 전명하고 “三相會議 決定을 바르게 인식하자”는 구호아래 託治概念을 재정립하고<sup>26)</sup> 民主主義 民族戰線을 결성하여 信託統治 지지를 주장한다. 이들의 贊託 주장은 “託治는 帝國主義의 위임통치와 달리 자주독립 건설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일제의 잔재를 숙청하여 政治·經濟的 發展을 도모하며 國際情勢에 비추어 한반도 問題解決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sup>27)</sup>이라는 論理에 입각해 있었다.

결국 信託統治案은 左·右勢力間의 葛藤만을 심화시켰으므로, 美軍政은 右翼勢力을 회유함과 동시에 강경론자인 金九와 李承晩을 견제하고 左翼에 대해서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좌익 세력약화정책을 취한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군정법령 제55호 ‘정당등록법’과 제72호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범행들에 관한 군정법령’을 발표하였다. 좌익에서는 이를 “日本人들의 治安維持法보다 더 고약한 것”이라고 비난한다.<sup>28)</sup>

1946年 5月 15日 精版社 僞幣事件<sup>29)</sup>으로 국민의 共產黨에 대한 나쁜 인상이 형성되자 左翼組織에 대한 전국적 수색을 실시하고 解放日

26) 沈之淵, 앞의 책, p. 53.

27) 위의 책.

28) Cumings, “美蘇共委前後에 걸친 左翼에 대한 彈壓,” 앞의 책, pp. 318~326.

29) 精版社僞幣事件에 관한 日誌는 宋南憲, 앞의 책, pp. 412~421와 國家保衛立法會議圖書館, 「韓國政治年表 1980」, p. 22~33.

報를 停刊處分하고, 精版社를 閉鎖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左翼은 9月總罷業<sup>30)</sup>과 10月暴動<sup>31)</sup> 등을 통하여 大衆動員으로 저항하나 오히려 일반 대중의 共產黨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1947年 3. 22總罷業과 계속된 폭동은 美軍政의 단호한 조치를 유발했다. 1947年 7月 15日 제 2 차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左翼人士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 검거가 시작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信託統治 問題는 左右翼間의 대립과 갈등을 첨예화시켰고, 左翼의 信託統治案 支持는 南韓에서 共產黨의 沒落過程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左·右合作問題와 過渡立法議院

信託統治案에 대한 左·右翼의 對立이 격화되자 이를 제시한 美國이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즉 美國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소련의 적화기도 가능성을 막기 위해 信託統治를 제의하였는데 韓國의 反蘇親美的 政治勢力인 右翼陣營이 信託統治를 결사 반대함으로써 소련과의 협상이 어렵게 된 것이다.<sup>32)</sup> 이에 極限對立의 원인이 되는 極右·極左勢力을 배제시킨 가운데 모스크바 협정의 범위 안에서 한국문제를 해결코자 統一政府樹立을 위한 左右合作을 지원하였다. 이를 추진한 人士는 右翼의 金奎植과 左翼의 呂運亨 등이었다. 1946年 6月 30日 「하지」中將은 金奎植, 呂運亨의 左右統一工作을 지지하는 聲明放送을 하였으며 7月 2日 “金奎植·呂運亨兩氏合作 秦效確信” 聲明을 발표하였다.<sup>33)</sup>

左右合作에 대하여 명분상 李承晚·金九는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左翼은 “모스크바 三相決定支持와 美蘇共委續開·土地改革·不純分子排除·政權 人民委員會에 移讓 등”이 合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30) 左翼罷業에 관해서는 宋南憲, 앞의 책, pp. 421~423 資料參照.

31) 10月暴動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 423~431 資料參照.

32) 梁東安, 앞의 책, p. 67.

33) 國家保衛立法會議圖書館, 앞의 책, p. 23.

주장을 하여 左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兩側의 주장이 절충되기 곤란하였다. 左右合作委員會는 左翼의 合作5原則과 右翼의 合作8原則을 절충하여 1946年 10月 7日 左·右合作7原則을 발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4)</sup>

① 모스크바 협정에 의하여 南·北韓을 통한 左右合作으로 民主主義 臨時政府樹立.

② 美蘇共委續開要請.

③ 土地改革에 있어 沒收, 有條件沒收, 遞減買償 등으로 土地를 農民에게 無償分與.

④ 親日派 民族反逆者 處理조례를 合作委員會에서 立法機構에 제안하여 입법기구가 심의 결정토록 할 것.

⑤ 南北의 政治運動者釋放·테러중지.

⑥ 立法機構의 機能, 構成方法, 運營은 合作委가 作成·實行.

⑦ 言論·集會·結社·出版 등의 自由絕對保障 등이다.

그러나 특히 土地制度<sup>35)</sup>·親日附逆者處理<sup>36)</sup> 問題에서 양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비록 「하지」中將이 合作과 立法機關의 공헌을 기대한

34) 宋南憲, 앞의 책, pp. 378~379 資料參照.

35) 左翼은 親日附逆者의 처단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土地를 無償沒收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植民統治期에 형성된 土地制度(朴文玉, 앞의 책, pp. 325~326)를 완전히 철폐하여 無償買入, 無償分配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韓民黨은 정강정책에서 “土地制度의 合理的 再編成”(宋南憲, 앞의 책, p. 126)이라는 방침에서 有償買入, 有償分配의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다. 이는 左右翼間의 土地制度改革上の 심각한 政策의 차이를 露呈한 것으로서, 1946年 10月 7日 左右合作委員會의 合作 7原則 가운데 “遞減買入 無償分配” 원칙 조항 때문에 左右合作委員會에 右側代表로 파견된 元世勳과 韓民黨 지도부간에 맹렬한 논쟁(의위 책, p. 129)이 있었음을 보더라도 土地制度에 대한 諸黨政策의 경직성을 엿볼 수 있다.

36) 親日附逆者 處理 문제에 관해서는, 車基壁, “日帝의 植民統治와 韓國民族主義思想,” 韓國政治學會編, 「現代韓國政治論」(서울: 法文社, 1987), pp. 78~79에서 植民統治下의 變節을 個性的 要因에 귀착된다고 본다. 또한 총독부 한인 관리와 식민지 경찰이 원성의 대상이 되었는데 統計에 관해서는 金正源 앞의 책, p. 35와 朴文玉, 앞의 책, p. 258 參照, 또한 朝鮮共產黨의 親日附逆者 處理에 대한 정강정책 내용은, 宋南憲, 앞의 책, p. 167, 朝鮮人民黨은 p. 179, 조선民族革命黨은 p. 201를 參照.

다는 聲明을 발표하였으나 各 政黨은 合作 7 原則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李承晩은 左右合作에 當분간 침묵을 지키겠다는 談話를 발표하였다. 특히 呂運亨이 行방불명된 것은 合作委員會가 모략으로 呂運亨의 名의를 도용한 것처럼 선전을 한 共產黨의 合作 7 原則拒否作戰이었다.<sup>37)</sup> 또한 韓民黨은 특히 7 原則 3 項 土地改革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정면으로 이의 파괴에 나섰다.<sup>38)</sup>

사실상 左右合作은 10月 14日 金九의 談話에 나타난 바와 같이 “... 목적은 民族統一에 있고 民族統一의 目的은 獨立自主政權을 신속히 수립함에 있는 것……”<sup>39)</sup>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통하여 國家統合을 목표로 하는 限 金九·李承晩 등의 동정을 받았으나 左右翼간의 모스크바 三相決定·土地制度改革·附日親日派處理方法에 대한 異見은 좁혀지기 어려운 비현실적 노력에 불과하였다. 비록 美軍政의 후원이 있었으나 左右合作委員會는 力動的 指導者나 大衆動員能力, 강력한 支持基盤이 결여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이를 추진한 呂運亨은 建準·人共을 주도하였으나 朴憲永에 의해 左翼主體勢力에서 밀려났었고, 비록 民族統一 國家建設이라는 민족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나섰지만 左翼으로 부터 左右合作을 포기하든지 右翼주도조건하에서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므로<sup>40)</sup> 左翼으로 부터 白眼視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테러의 세례를 받고 중국에는 암살되는 운명을 맞는다.<sup>41)</sup>

金奎植도 이와 비슷한 압력을 받았으며 民主議院은 左右合作委員會를 기회주의자·회색분자들이라고 평가<sup>42)</sup>하기도 했다. 그는 美軍政이 左右合作과 동시에 추진한 立法機構의 설립, 즉 “임시조선 정부가 수

37) 宋南憲, 앞의 책, p. 383.

38) 위의 책.

39) 위의 책, p. 381.

40) Cumings, 앞의 책, p. 329.

41) 楊在仁, “解放政局에 있어서의 政治테러,” 「韓國政治學會報」, 제 20집 2호(1986), pp. 177~181.

42) Cumings, 앞의 책, p. 333.

립될 때까지 美軍에게 政治的·社會的·經濟的 改革의 기초로 사용될 法令草案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임무를 띠게 될 立法諮問機構를 설치하려는 美軍政의 계획에 따라 추진된 過渡立法議院의 의장으로 활약한다. 그러나 「러치」長官이 「하지」中將에게 南朝鮮立法機關設置를 건의하자 民戰傘下 各界에서 비등하는 反對聲名을 발표하였고, 民戰의 左右合作原則 중에서 立法機關反對를 闡明하였음에 비추어 過渡立法議院의 순조로운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후에 美軍政이 左右合作委員會의 1人인 安在鴻을 민정장관에 임명하여 立法府와 行政府에 中道派 人士가 주축을 이루어 美國의 韓國人化(koreanization) 作業<sup>43)</sup>에 참여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美軍政下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인하여 모스크바 三相協定の 범위내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金奎植 등 中道派가 추진한 左右合作은 의미를 상실하고 이들은 “民族自主聯盟”이라는 中道派 세력의 연합체를 남기고 弱體化한다.<sup>44)</sup>

후에 金奎植은 金九와 더불어 南韓單獨 선거결정에 반대하고 北側과의 교섭을 통하여 金九와 더불어 北行을 통하여 統一政府樹立을 위한 노력을 하나 이는 비현실적 노력이었다.

### 3. 南韓 單獨政府樹立 問題

信託統治案에 대한 左·右翼間 對立을 회피하려는 美軍政의 계획에 의해 추진된 左右合作이 사실상 非現實的이라는 인식을 한 李承晩은, 金九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反託運動을 주도하고 동시에 南韓單獨政府 樹立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한다. 이는 소련의 韓半島 전체에 대한 支配 위협을 방지하고 南韓을 美國이 國際政治的 力學關係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게 하려는 견제책으로 그 자신의 共產黨과의 연립이 共產化의 과정이라는 신념에서 추진된 것이다.<sup>45)</sup> 李承晩은 19

43) 梁東安, 앞의 책, p. 74.

44) 위의 책.

45年 12月 26日 “反共과 信託統治絕對反對”를 방송하였는 바, 특히反共에 대하여 국내여론이 비등하였고, 12月 27日 美通信記者에게 反共談話를 하였었다.<sup>45)</sup>

한편 美國側에서도 南韓에서 左翼의 정권장악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韓國의 문화수준을 고려하여 單獨政府 樹立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sup>47)</sup>이 있었으나 이는 美軍政 當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1946年 4月 4日 “南朝鮮에 李承晩을 主席으로 하는 單獨政府說”이 「샌프란시스코」發AP通信으로 入電되었는데, 「러치」長官이 이를 부인하였고 各界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sup>48)</sup> 그러나 李承晩은 美蘇共委가 결렬되었다는 보도에 접하자 井邑에서 “南韓만이라도 臨時政府 혹은 委員會같은 것을 조직하여 38以北에서 소련이 撤退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자”<sup>49)</sup>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치」長官의 反對談話가 있었고 국내여론도 국내의 일부 우익세력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대하고 統一政府樹立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묵살하고 여전히 單政을 주장하였다.

한편 左·右翼間 對立이 노골화되어 左翼의 極限鬭爭樣狀이 심각해지고 北韓에서 사실상 共產主義政權이 수립된 상황이 인식됨에 이르러 李承晩의 單政論은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때에 이르러 統一政府 樹立을 지향하는 金九에 대하여 李承晩의 單政論이 수리할 수 있는轉期가 마련되었다. 李承晩은 對美外交活動<sup>50)</sup>과 國內支持基盤의 確保作業<sup>51)</sup>을 통하여 그의 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구상을 실현해 나간 것이다.

李承晩과 臨政을 둘러싸고 還國 以前부터 경쟁관계에 있는 金九의

45) 위의 책, p. 82.

46) 國家保衛立法會議圖書館, 앞의 책, p. 14.

47) Cumings, 앞의 책, pp. 275~279.

48) 國家保衛立法會議圖書館, 앞의 책, p. 20.

49) 宋南憲, 앞의 책, p. 336.

50) 위의 책, pp. 339~341.

51) 김정원, 앞의 책, p. 55.

상황을 살펴보자. 金九를 비롯한 臨時政府는 ‘政府’로서의 조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美軍政과 동시에 左翼의 人民共和國를 對抗勢力으로 맞아들여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臨政의 理念的 構成이 다양하여<sup>52)</sup> 民族主義的 感情에 호소하는 것 이외의 강한 응집력이나 포용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韓民黨이 臨政을 정권계승의 正統性<sup>53)</sup>을 가진 기구로 인식하고 이를 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建國過程에서 親日派를 배제하자”는 臨政係人士들의 주장으로 국내적 기반이 강한 韓民黨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자연히 美軍政, 人共을 中心으로 한 左翼勢力, 李承晚, 韓民黨과 밀착되지 못하고 갈등적 관계에 처함으로써 超黨派의 機構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政派로 축소되었다.<sup>54)</sup> 金九는 反託運動의 핵심인물로서 민족감정에 호소하여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지만 사실상 國內諸勢力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獨立運動家로서 民族主義者로서 金九는 獨立과 統一에의 열망을 받고 있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國際的·國內的 諸要素들 간의 현실적 역학관계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李承晚은 獨立運動의 經歷과 높은 學歷으로 국민의 신활적 신망을 받았다. 그는 동시에 자신과 臨政 指導者로서 후에는 右翼의 指導者로서의 경쟁적 위치<sup>55)</sup>에 있는 金九와 反託運動에 협력하면서도 자신

52) 金九의 韓國獨立黨, 金元鳳의 朝鮮民族革命黨, 金明湄의 新韓民主黨, 金星淑·張建相의 朝鮮民族 解放同盟, 柳林의 無政府主義者總同盟의 합인 臨政의 理念的 構成의 多樣性.

53) 3.1運動을 계기로 수립된 臨時政府에서의 李承晚의 직책은 國務總理였으며, 朝鮮民國臨時政府에서는 副都領이었고, 上海 臨時政府의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개최시에는 國務總理였고, 기록에 의한 漢城臨時政府에서는 執政官總裁였다. 후에 漢城臨時政府和 上海臨時政府의 統合이 이루어지는 바 李承晚의 이러한 活動이 그가 지도자로서의 正統性을 입증시키는 데 利用된다. 이에 관해서는 洪淳鈺 “上海臨時 政府의 正統化過程” 「新東亞」(1968年 3月), pp. 319~343과 김정원, 앞의 책, p. 53을 參照.

54) 梁東安, 앞의 책, p. 51.

55) “金九는 臨政이 上海에서 채택한 上海憲法에 따라 탄핵받은 李承晚의 후임으로 臨政의 주석이 되었지만, 李承晚은 3·1運動 指導者들이 작성하여 서울에서 채택한 臨政의 서울憲法에 의거 자기가 계속 臨政의 주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앞의 책, p. 58에서 引用.



의 構想을 실현시킬 기반이 될 집단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였다. 동시에 당시의 美·蘇의 對外政策 등 國際政治的 狀況의 결과를 예견하여 自由民主主義的 政治理念을 구현하려는 限 共產主義者와의 협조적 관계유지가 불가능함을 인식하여 南韓 單政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李承晩은 臨政과의 관계소원으로 새로운 正統性부여 작업을 할 지도자를 모색하고 있는 韓國黨과 결합하여 자신의 정치이념을 수용하고 전파할 수 있는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였으므로 正統性, 支持基盤 그리고 후에 힘의 행사자로서의 美國과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李承晩과 韓民黨의 승리가 胚胎되었다.

李承晩이 예견한 대로 美·蘇共同委員會의 2차에 걸친 회담이 결렬되고 결국 한국문제가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U.N에 이관됨으로써 南韓만의 單獨政府가 수립되자 그는 현실적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美·蘇間 冷戰으로 민족적 염원인 統一政府 樹立이 좌절된 채 南韓에만 自由民主主義的 政治理念에 입각한 정부수립으로 이루어진 李承晩의 解放後 3年間的 갈등과 극한투쟁 속의 정치적 승리는 완전한 國家統合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可能的 地域내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부수립의 바탕을 이룩한 것이다.

#### IV. 結 論

위에서 본 解放後 3年의 略史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치적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사실상 당시 국내 상황에서 하나도 낙관적인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조건만이 존재하였다. 사회적으로는 權威主義的 行態와 前近代的 殘滓가 성행농후하였고 86%란 高度의 文盲率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日帝식민지착취政策으로 인하여 破壞적인 工業生産關係, 半封建的 農業生産關係였었다. 문화적으로는 高等教育을 극도로 억압한 日帝植民地政策으로 말미암아 지식인은 최소한 비율을 차지한 데

불과하였다. 여기에 붙여 政治的 思想的 대립 갈등은 심각하였다.

이러한 환경, 조건 속에서 韓民黨을 위시한 右翼陣營이 左翼, 특히 共産黨과 對抗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要因의 하나는 우익진영이 압도적으로 많은 독립투사, 애국지사, 명사, 지식인을 운집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韓民黨의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물론 여기서 美軍政이란 중요한 조건을 고려치 않고 한 말인 것이다.

둘째, 위에서 말한 요인과 연관되겠지만 “인간에 의한 政治”, 또는 “人格의 役割(Role of Personality)”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李朝 500년 동안 우리 나라는 法·制度에 의한 정치라기 보다는 “人間에 의한 政治”였었다. 이러한 儒敎的 傳統文化에서 유래된 정치사회에서의 “人格의 役割”의 중시는 대중적 기반 또는 數的인 劣勢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엘리트”적 民主主義者라는 것을 잘 표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서 立法議院의 民選議員選舉 및 制憲議會議員選舉 등에서의 韓民黨 및 韓民黨系의 다수 當選일 것이다.

셋째, 이 시기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정치이데올로기는 共産主義보다도 民族主義였었던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치밀한 이론 또는 엄격한 科學的 思想보다도 모든 국민의 평범한 경험, 감정 등이 더 큰 조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信託統治, 左右合作, 單政樹立問題 등의 결정 진행과정에서 특히 느낄 수 있고 또 朴憲永의 思想的 表現에 대한 국민적 반영 등에서도 느낄 수 있다.

넷째, 美蘇의 兩國分割 占領과 冷戰體制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등 國際政治의인 요인이 일관성 없고, 이것은 미봉적인 정책으로서의 美軍政의 시책, 기타 權力鬭爭過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